

한화석유화학, 대우조선 인수 재무부담

대우증권, 지분 20%에 차입금 3조원 웃돌아 ... 이자비용 2000억원 이상

대우증권은 4/4분기 영업실적 악화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인수시 재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화석유화학의 투자의견을 <단기 매수>에서 <중립>으로 낮춘다고 10월27일 발표했다.

이용주 애널리스트는 “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4/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37.6% 감소한 432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말했다.

또 “한화 컨소시엄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입찰금액이 6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우조선해양 인수 확정시 한화석유화학의 재무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아울러 “한화석유화학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20%로 가정하면 한화석유화학의 총 차입금은 3조원을 웃돌아 한해 이자비용이 2000억원을 넘게 된다”며 “이자보상배율이 1.0배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”고 우려했다.

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10/27>